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21-10호 관련)

단체명 : 강서구립도서관협의회(회장:이민식)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24길 5 길꽃어린이도서관

전화번호 : 02-2663-4764

내 용

조례안 제17조의 2(위원회 구성)항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2. 구립도서관 관장 및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3인, 교육계 3인, 지역주민대표(구의원 포함) 3인 구성을 제안한다.

구의원 3인, 작은도서관장 2인의 현안은 관장과 담당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8인중 50% 이상의 위원을 특정하게 되므로 실제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및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의 참여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의 자격 범위를 더욱 넓혀 다양한 인사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야별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안을 제안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가양도서관장 김 만 리
강서영어도서관장 김 지 순
곰달래도서관장 이 민 식
꿈꾸는어린이도서관장 이 지 현
길꽃어린이도서관장 이 민 식
등빛도서관장 심 언 권
우장산숲속도서관장 이 지 현
푸른들청소년도서관장 김 자 동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귀하

강서구 의회에서 제시한 구립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작성자 : 서민정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7길 9

저는 글을 쓰고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타 자치구에 살고 있지만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기존 강서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 규칙에 해당하는 '당해 도서관장과 문화계 3인, 교육계 3인, 지역주민대표 3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어떤 이유로 개정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찾아보니, 도서관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나와 있고, 공공도서관인 만큼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구성을 지향해야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왜 지역주민의 자리는 없습니까? 현장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소위 급 있는 사람들로 자리 채우기를 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조례도 다 검색이 되더군요. 타 자치구 조례를 살펴봐도, 이와 같이 훌륭한 운영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개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려면 조금 더 편한 접근방법, 통로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서 제출합니다.

신설 초래 개정안을 살펴보니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가요?

타지치구에 비해 동네사람들과 소통이 많은 강서구 인데, 주민들은 쏙 빼 놓았구려.

그리고 작은도서관장은 무엇인지요? 내 이웃주민이 하는 봉사자 말씀인가요?
그 분들이 전문성이 있나요?
아니면 그 분들이 주민을 대표한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참으로 구태 스러운 행보를 취하는 구려.

도서관을 정말 이용하는 내 이웃은 어디에 있는가요?
내가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을 비전문가인 그네들이 위원으로 있는게 합리적인가요?
납득이 가지 않아 반대 의견을 내보내봅니다.

신 남 영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부영아파트 107동 502호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시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 곳이다.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비전문가들로 구성한다면 어떻게 될지 뻔하다.

운영위원회에 구의원들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 인력들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운영위원회에 위촉되어야 한다. 도서관 운영에 정치가 개입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강서구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

구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한다면 강서구민으로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가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구의원들은 얼마나 엉터리인가는 이 초례안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다시 전면 검토해라.

구의원들은 도서관 운영에 간섭하지 말고 예산이나 많이 끌어와서 도서관 지원이나 해주길 바란다.

강서구민으로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구의원들은 깊게 고민하길 바란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61-42 두성주택 302호
최진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반대 의견

해당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 중 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1. 도서관법(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12.22)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13조 (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2. 이와 같이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서관법 내용과 같이 도서관 현장에 대해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대비 개정안 제5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7조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운영,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과 소장자료의 폐기 제적, 불용 결정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도서관 관련 종사자 및 해당 업무 지식에 능통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7조2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 도서관운영위원회와 달리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개정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평군 도서관운영위원회 공고 제2021-70호에 따르면 양평군의 경우 도서관

관운영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이에 신청 자격은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도서관 연계 지역문화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 등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문화 활동 등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도서관은 그중에서도 공공도서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치적 목적, 개인의 사유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이에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기합니다.

의견제안자 : 강 규 혁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50 S&I

반대 의견서

강서구 의회에서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

제안 이유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기존 조례와 차이점을 찾아보니 '위원회 구성' 이군요.

강서구립도서관은 강서구청과 구의회 소유도 아니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구립도서관은 그저 강서구 주민의 것입니다.

강서구청과 구의회는 도서관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이며,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지역주민들에게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제안한 위원회 인적 구성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목적에 부합하느냐고

적어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순수한 지역주민들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80길 9, 402호

이환기 올림